

사·부·대·중

매미 소리가 높다

언제부터가 도시 매미가 야광 때문에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밤에도 웅다. 밤 동안에 10독스 이상의 불빛이 비치면, 벼도 스트레스를 받아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도시는 날마다 24시간씩 돌리며 일을 하지만 야광은 채워지지 않는다. 자연에 가하는 폭력과 스트레스로 어찌된 그들도 집단 자살과 같은 '멸망 충동'으로 치달을지 알 수 없다. 아니, 실제로 해마다 수십 종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노귀남 협성대 강사·국문학

티베트의 초펄스님한테서 인과법의 수행을 간곡하게 들었다. 티베트 사람들은 세상에선 절대로 거저 돌아오는 일이 없고 업과 공덕에 따른 과보가 분명하다는 믿음이 아주 깊다고 한다. 그래서 자비와 봉사로 중생을 위하고, 스스로는 중생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단다. 성불이 소원인 삶과 절에 가쁜 복을 빌기 바쁜 인생의 앞날이 각각 어떠하겠는가.

첨단 문명의 길을 가고 있는 현

대인의 인과법은 아 이러니컬하게도 축생도를 좇고 있는 듯하다. 여성의 x염색체끼리 결합해 딸만 낳을 수 있다는데, 이 일은 암수 한몸의 생들과 꼭 닮았다. 돼지에서 받을 수 있다는 장기 이식은 인간과 축생이 몸을 서로 바꿀 수 있음을 말해준다. 만물의 영장과 미물을 경계짓기 어려운 이런 일에서, 동체대비하는 생명의 가르침을 다시 밝혀보는 공부는 빛으로 미룬다. 늑지 않겠다고 모습에 더욱 집착하며, 무상하고 공한 인과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은 자신을 영원히 살 몸처럼 탐한다.

어리석음이다. 꿈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벽장에 보관해 두었다. 그걸 내일 행사 때 쓴다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사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그랬던 것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모순에서 우리는 벗어날 줄 모른다. 자연대로의 목숨과 이치를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7월의 매미소리를 들으며 되돌아본다.

목탁소리

내용없는 워크숍

김주일 (취재2부 기자)

불교여성개발원이 14~15일 양일간 봉은사에서 '사찰에서의 공동육아와 교육'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여성들 자신이 머리를 맞대고 불교여성개발원 설립 초기부터 추진해 오던 '사찰내 놀이방 설치 홍보'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을 하자는 것이었다. 여성불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교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찰내 유아시설 설치는 여성들의 신생활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계획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현재 사찰내에 설치된 유아보호시설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여기서 나타난 장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탁아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세워 각 사찰에 홍보 하려고 했다.

선 두 명의 발제자로 나온 연사의 강의 내용이 근대 육아교육의 문제점과 사찰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만 초점을 맞췄다. 물론 육아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뛰어난 이날 워크숍에서는 어린이집과 성격이 다른 사찰내 탁아시설에 대한 한 두개의 사례 정도는 언급을 해야 했다. 또 주최측에서라도 내일 있는 행사를 위해 정확한 방향제시를 했어야 했다. 이 모두가 미진하다보니 본과토의에서조차도 핵심을 벗어나 참석자들이 개인적인 궁금증을 묻는 것으로 어설픔게 마무리 됐다. 각 사찰의 유아보호시설 설치에 여성들의 신생활을 독려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어릴때부터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워크숍은 내일보다 아 아쉬움이 크다.

희귀 토종식물 695종 · 천연기념물 38종 서식 내원사 · 금봉암 등 12 수행도량 곳곳에 위치

파헤쳐진 천성산... 무너지는 수행환경

비구니스님들의 참선도량 내원사(주지 혜동)가 위치해 있는 천성산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수행환경 수호 차원에서 지역 스님들과 환경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다. 자연과 수행환경을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은 관광지 개발 등 지자체의 수익을 위한 개발논리에 맞서 즐기차게 대항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호사상 갖든 화염벌

특히 대부분의 전통 사찰이 수려한 자연경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수행환경의 수호는 미래에 콜러줄 국민들의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일과도 직결되므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양산시의 무분별한 임도 개설로 습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천성산 보호를 위해 전면에 나선 내원사 스님들의 결단은 책임있는 수행자의 본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16일 내원사와 20여개의 환경단체들은 내원사에서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 임도 개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공동대책위)' 결성식을 갖고 앞으로 천성산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수행성지 천성산을 보호하고 참선도량 내원사의 수행환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 사찰의 노력에 앞서 해당 지자체와 환경부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자연생태계 보전지구

해발 821m의 천성산은 1300여년 전 원호스님께서 화염경을 설했다는 유래가 있는 화염벌을 비롯 국내 최고 생태계 보고인 화염늪, 밀밭이 있는 산이다. 또한 원호스님에 의해 창건된 내원사를 비롯 금봉암 안락암 미타암 등 12곳에 이르는 수행도량에서 불법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불교성지다. 특히 내원사는 경봉, 황곡 스님 등 근대의 대 선지식들이 정진했던 곳으로 625 때 소실되었다가 50년대 중반 수옥스님에 의해 다시 세워져 현재 70여 비구니스님들이 참선산문에 들고 있는, 대표적인 비구니참선도량이다. 천성산은 <신중동국여지승람>에서 그 아름다움을 천가지 연

꽃 형상과 같다고 묘사했으며 소금강산이라고 했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다우며 끝이 깊고 그윽해서 수행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천성산 화염늪과 밀밭늪 고층습지는 기존에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한 대암산 용늪이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왕등재 고층습지에 비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뒤지지 않는 지역으로 695종의 희귀 토종식물과 천연기념물 38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 화염늪 고층습지에는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진피리새, 잠자리난초 등의 희귀식물과 환경부 법적 보호종인 표범장지뱀, 한국특산종인 도롱뇽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참매, 황조롱 등의 천연기념물과 꼬마잠자리 장수풍뎠이 등 다수의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사 박물관이자 표



<내원사의 천성산 임도 원상복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의 반응은 형식적인 행정행위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양산시 가내원사 경내지 임도 복구를 위해 성의없이 심은 소나무들.>

양산시 불법임도 복구 말뿐 공사강행 고층 습지 훼손·계곡 수질오염 가속 녹색연합 등 20여단체 대책위 결성

본관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천성산 훼손과 내원사 수행환경 파괴의 중심에는 양산시의 무분별한 임도개설과 습지보전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개발논리가 버티고 있다. 양산시는 임도를 내원사 화염늪 습지 바로 아래까지 도로를 개설했는가 하면 내원사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침범하면서 불법적으로 임도를 개설했다. 곳곳에 개설된 임도는 폭이 3m, 5m 심지어는 15m에 달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포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또 내원사 경내지에 개설된 임도는 총 4km에 달해 임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소음과 매연은 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의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내원사 계곡의 수질 오염 및 수온 고갈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체택한 후 불법 임도개설과 습지 훼손 책임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작성, 양산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처음 화염늪을 발견 보고했던 정우규 박사는 "천성산은 8등급 이상의 자연림으로 개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며 "임도 개설로 습지의 특성이 스펀지층이 사람에게 의해 다져져 있고 풀이 여기저기 베어져 훼손이 심각하다"며 양산시와 환경부의 습지 보전 노력을 촉구했다. 양산시는 "관광화를 위한 계획은 전혀 없었다"며 "습지 보전은 환경부의 일이라 지자체인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차후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양산시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지 못한 천성산공동대책위는 앞으로 △불법 임도 원상복구 촉구와 개발 저지 △불법 임도 개설에 대한 법적 고발 △습지보전지구 지정 유도 및 습지 △임도 폐쇄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시 관광수입에 눈멀어

이처럼 천성산이 양산시의 관광화를 위한 임도개설로 파헤쳐지면서 훼손이 심화되고 가속화되자 내원사 스님들과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천성산 보호를 위한 노력에 나섰고 16일에는 천성산공동대책위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6일 내원사 주지 혜동스님, 산간지을스님, 양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대한산악연맹, 녹색연합 등 20여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성식에서 천성산공동대책위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지을스님을 추대하고 결성선언문을

천성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임도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천성산을 50년도 더 오르내리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었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천성산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지을스님(내원사 산간)은 소극적이던 사중스님들이 마음을 내어 동참하게 된 것과 환경단체 등이 적극 힘을 보태어 주는 것 모두가 그 일심이 만들어진 큰 흐름이라고 말했다.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는 산을 보고 아픔을 느낀 사람이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한 지을스님은 "임도로 산을 연결해 관광지화하려는 양산시의 의도가 곳곳에서 보이는 만큼 산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마음으로 천성산 보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성산 지키기 대중동참 기대"

대책위 공동위원장 지을스님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a.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현존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조되는 산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신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신경의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력강화(조부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우취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날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을 創造하시옵기를 祈願드리으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보유)
자연산삼 문의산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제배자 성광수 씨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2004